

한국지방신문협회 공동 칼럼

光日春秋



윤재웅
동국대 교수·문학평론가

새해가 밝았다. 해가 바뀌면 새로운 다짐도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덕담도 나누는 다. 올해는 좀 더 살기 편안해지기를... 가족들 건강하고 경제사정이 보다 좋아지기를... 가만히 헤아려보면 우리의 소망은 현실적이다. 일상의 평안만이 축이다. 하지만 이러한 바람은 실상이 그렇지 못하다는 반증이다. 전세난에 시달리고 비정규직의 설움을 감내하며 경제적 불평등과 위화감 속에서 매일 매일을 보내는 사람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 정부는 소득 3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데 삶의 구체적 현실은 딱딱하지만 하다. 진화격정, 취업격정, 결혼격정, 양육격정,

기쁘고 좋은 일

연급격정... 등, 우리는 어느 새 걱정을 더 많이 하고 사는 사회의 일원이 되어간다. 기쁘고 좋은 일은 어디에 있는가. 누가 우리를 위로하는가. 현실과 미래에 대한 희망을 기대하기 어려울 경우 복고가 그 해답이 되기도 한다. 서럽고 가슴 아픈 과거라도 거기에는 최소한의 공감이 있다. 영화 '국제시장' 관객 수가 곧 1천만을 넘어설 듯하다. 흥남 출신의 꼬마소년이 부산 국제시장에 정착하여 평생을 살아 가는 이야기가 골간을 이루는 가운데 필름은 격동하는 현대사의 주요 장면들을 들성들성 보여준다. 흥남철수, 파독광부, 월남전 참전, 이산가족 찾기 등 당대의 주요한 사건을 재현하는 데 주력한다. 따라서 영화는 주인공 윤덕수의 개인 사나 가족사, 그리고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사회사를 동시에 보여준다. 세대에 따라, 정치적 입장에 따라 반응 차이가 있지만 조국 근대화 세대의 노고에 대한 이해와 공감이라는 점은 많은 관객들이 동의하는 것 같다. 그것은 찬란한 과거의 영화(榮華)에 대한 향수라기보다는 기억과 역사의 커 속에 잠들어 있던 서

러운 슬픔에 대한 감정이입이다. 함께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면서 오늘 우리의 작은 즐거움과 기쁨이 이전 세대에게 빛지고 있다는 심리적 채무감을 확인시켜 준다. 영화의 메시지는 분명하다. '지금 삶이 그대를 힘들게 할지라도 포기하거나 좌절하지 말라. 이전에는 훨씬 어려웠다. 하지만 억척으로 살아왔다.' 그래서 이 영화는 조국 근대화에 몸 받쳐 살아왔던 이들에 대한 헌사로 읽힌다. 삶에서 기쁨이나 즐거움을 찾는 일은 단순한 쾌락추구가 아니다. 또한 일상의 평안만이 우리가 추구하는 선(善)도 아니다. 우리가 일상의 질곡에서 벗어나 진정한 마음으로 마음의 평화를 추구하지 않는다면 기쁘고 즐거운 일은 허공의 구름처럼 덧없게 된다. 활기찬 건강과 아름다운 외모, 신분의 안정과 물질적 풍요가 기쁨과 즐거움의 원천인 듯하지만 꼭 그렇지는 않다. 지구 생명공동체 전체로 눈을 돌려 모두 함께 사랑을 나누려는 마음가짐과 실천이 중요하다는 조언도 있다.

올해 탄생 100주년을 맞은 미망 서정주 시인은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것' (1993)이라는 시에서 이렇게 노래했다. "이 세상에서 제일로 좋은 것은/ 날아서 백일쯤 되는 어린 애기가/ 저의 할머니 보고 빙그레 웃다가/ 반가워라 울아울아/ 아직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뭐라고 열심히 웅얼대고 있는 것.// 그리고는/ 울타릿가 갑나무에/ 산까지가 날아와서/ 뭐라고 거들어서/ 짹짹거리고 있는 것./ 그리고는/ 하늘의 바람이 오고 가시며/ 창가의 나뭇잎을 건드려/ 알은 채하게 하고 있는 것." 시인은 생명체들이 따뜻하게 연대하는 모습에서 삶의 기쁨과 공동선을 발견한다. 이런 게 지혜가 아닐까? 새해 들어 새롭게 기쁘고 즐거우려면 우리도 주변에서 많이 발견하면 된다. 추운 겨울에도 햇빛은 나를 얼마나 따뜻하게 해주는가. 지금 내 입으로 들어가고 있는 밥은 우리 생태계의 얼마나 많은 노력이 나를 위해 베풀어주는 것이인가. 가슴을 활짝 펴고 심호흡을 한 다음 눈을 크게 떠서 더 멀리 바라보자.

社說

지자체, 외국기업 유치 시스템 개선부터

외국계 기업이 전남지역에 82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추진, 성사단계까지 이르렀으나 전남도와 장흥군의 미온적 자세로 무산됐다고 한다. 지자체가 투자유치 초기에만 열성을 보였을 뿐 최종 마무리에는 허술하게 대처해 결국 물거품 됐다 는 것이다. 따라서 외국기업 유치 시스템에 대한 보완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6월 전남도와 장흥군에 따르면 지난해 6월 싱가포르계 회사가 한국 측 투자기업과 지분 합작으로 장흥바이오산단에 장유테마파크 회사를 설립키로 하고 협의 진행해왔다. 그러나 한국 기업의 자금난으로 사업 추진이 답보상태에 머물렀고 300억 원에 달하는 토지대금 중 한국 측은 5% 계약금만 납부하도록 했다. 나머지는 외국회사가 떠안는 조건에 장흥군이 25억 원 정도의 인센티브까지 제공키로 하면서 협의가 마무리됐다. 이어 지난 10월 말 투자 협약식 날짜까지 잡았으나 한국 기업이 끝내 자

금 여력이 없으며 철수에 무산됐다. 외국회사는 이후 전남도와 장흥군의 어떠한 해명도 없었다고 비난했다. 이번 일은 전남도와 장흥군이 한국 기업에 대한 면밀한 조사나 면담 등 추진과정에서 세심함이나 적극성이 부족해 무산됐다고 볼 수밖에 없다. 지자체가 투자 여력을 철저히 따져보고 양기업 간의 가교역할을 하는 등 충분히 소망만 했어도 잘 마무리될 수 있었다. 외국기업 유치는 새로운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로 직결된다. 이 때문에 전국의 모든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달려들고 있고 단체장의 실속없는 실적 향시로 전락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무분별한 투자유치는 문제가 있다. 하지만 전남도와 장흥군이 매끄럽게 완결하지 못한 만큼 문제점을 되짚어 보고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 투자기업을 분석할 수 있는 전문직업 중심으로 조직을 정비하고 성과에 대한 보상 등 제도도 보완해야 할 것이다.

나주혁신도시 기반시설 확충 속도 내라

한국전력과 농어촌공사 이전 등으로 나주 빛가람도시(혁신도시) 시대가 본격적으로 막을 올린지 1개월이 지났다. 전체 16개 대상 기관 중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면서 혁신도시는 이제 새로운 신도시로 변모하고 있다. 특히 이전 기관 직원만 6200여 명에 달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이전이 속속 진행되자 기반시설 확충에 주력하고 있다. 하지만 공공기관 직원들은 '교통·교육·생활편의시설은 물론 병원·약국·편의점 등 기본시설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시내버스는 1시간 간격으로 운행되고 있으며 혁신도시~광주 간, 혁신도시~나주 간 교통편도 여의치 않다고 한다. 대부분 승용차가 없는 직원들로서는 생활필수품과 식자재 구입마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도로가 어둡고 CCTV나 순찰차도 보이지 않아 여직원들은 야근을 극

도로 기피하고 있다. 영화나 공연 등 문화생활 즐기기는 아예 꿈도 꿀 수 없으며, 몸이 아파도 미리 구입한 상비약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처럼 정주 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주말이면 직원의 80~90%가량이 서울 등지의 가족을 찾는 '기러기 아빠' 신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따라서 기반시설이 제대로 확충되지 않으면 서울 등지에 사는 이전 기관 직원들의 가족이 옮겨 오기 어려워 혁신도시는 주말과 휴일 당면 '유령도시'로 전락할 가능성이 크다. 광주시와 전남도, 나주시는 공공기관 직원들이 혁신도시에 안착할 수 있도록 정주 여건 마련에 속도를 내야 한다. 물론 한꺼번에 모든 시설을 완비하도록 할 수는 없지만 가장 기본적인 치안, 교통, 의료, 생활편의시설 등은 서둘러 개선해야 한다. 그래야 인구 5만 명의 명품도시로서, 광주·전남의 성장동력으로서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의료칼럼

겨울방학은 성장의 적기



강채미
박달나무한의원 원장

식생활이 서구화되면서 성인 평균 키도 커지고 체형 자체가 변하고 있다. 하지만 실상 저성장 때문에 고민하는 아이들도 상당하다. 속속 자라다가 일제갑치 성장이 멈추거나 아예 성장 자체가 더딘 것이 그러한 경우다. 정상적인 어린이는 1년에 5cm이상 자라는데, 사춘기가 끝나지 않은 아이가 1년 동안 4cm이하로 자라면 성장장애를 의심해봐야 한다. 또 부모 중 한 사람의 키가 매우 작은 경우, 표준신장과 비교해 10cm미만인 경우도 성장장애를 염두에 두어야 한다. 키 크는 데 좋은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성장을 위해서는 좋은 운동과 수

면습관이 기본이다. 어린이 농구단, 유소년 축구단과 같이 어렸을 때부터 꾸준한 운동을 해 온 학생들은 성장지료를 하더라도 효과가 높다. 그만큼 운동과 성장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키 크는 데 효과적인 운동은 단연 줄넘기다. 이 외에 농구, 스트레칭, 자전거, 조깅, 댄스, 맨손체조, 배구, 축구, 테니스, 배드민턴 등과 같은 유산소운동을 꼽을 수 있다. 특히 점프 동작이 포함된 운동은 성장판을 자극하는데 더할 나위 없이 좋다. 또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호르몬이 분비되기 때문에 최상의 숙면을 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 이때 기저가 같은 간단한 스트레칭이라도 놓치지 말고, 똑바로 누워 몸을 쭉쭉 펴는 것이 키 크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스트레칭을 하는 시간은 아침에 일어날 때와 취침 전이 좋다. 키가 큰다는 것은 관절 근처 성장판 연골세포가 자라면서 뼈가 되는 과정이다. 성장판 연골은 성장호르몬의 영향을 받게 되는데, 성장호르몬이 빨리 분비되면 될수록 반대로 성장호르몬 분비는 감소하게 된다. 초경 등의 2차 성징이 나타나면

성호르몬 분비량은 급격히 증가하고 성장호르몬 분비량은 상대적으로 감소한다. 예전에 비해 아이들의 평균 신장은 10cm이상 커졌고 그만큼 신체적인 성숙도 빨라져서 초경시기도 평균 4.5세 정도 앞당겨졌다. 이러한 조기 성숙속은 성장판이 빨리 닫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키를 키우는데 가장 필요한 영양소는 바로 단백질과 무기질이다. 한창 성장할 시기에는 고기, 생선, 콩 제품, 유제품 등의 단백질 공급 식품과 밀치, 견과류, 과일류, 녹황색 야채 등 무기질 공급 식품을 함께 섭취해야 한다. 다만 고기를 섭취할 때 기름을 사용해서 조리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굽거나 삶아서 먹는 것이 좋다. 단백질이 성장을 위한 에너지원이려면 무기질은 성장의 원료가 된다고 할 수 있으므로 편식을 피하고 균형잡힌 식단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키 크기에 정성을 쏟고 싶다면 지방과 탄수화물로 구성된 인스턴트나 패스트푸드는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비염이나 아토피같은 알레르기성 질환이 있는 아이나 유난히 입이 짧아서

마르고 잘 크지 않는 아이들은 성장 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증상이 없는데도 또래보다 10cm 이상 작은 경우, 연간 4cm 미만으로 자라는 경우, 키는 작는데 또래보다 정서적으로 성숙한 경우, 그리고 또래보다 훌쩍 크면서 신체적으로 빨리 성숙한 경우는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진단 치료를 받는 것이 좋다. 한방에서는 성장에 장애가 되는 질환들을 찾아 치료해서 성장 호르몬이 원활히 분비되고 몸속의 부족한 영양소를 보충해주는 비타민과 미네랄의 보고인 한약을 통해 치료를 하고 있다. 성장지로는 아이들의 성장판이 닫히기 전에 필요한 것이다. 멈춘 키를 다시 자라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랄 때 더욱 잘 자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긴긴 겨울방학, 키로 인해 고민하는 어린이나 청소년 또는 부모님들은 자녀와 함께 일찍 자기, 매일 운동하기, 올바른 식생활 실천하기 등을 실시하고 필요하다면 전문 의료기관을 찾아 성장판 체크와 같은 검사를 받아볼 것을 권한다.

기고

한자 문맹을 만들지 말자



정기연
전 영암신북초등학교 교장

낫 놓고 기(역)자도 못 읽는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은 글자를 보고도 못 읽는 문맹자(비문맹자)를 두고 하는 말이다. 광주시 빔빛을 노인건강타운에서는 많은 노인이 건강 취미 오락 학습 등의 프로그램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으며 분야별로 전시회를 한다. 서예 분야에서 많은 노인이 쓴 글씨를 표구해서 전시했는데 필자가 관람하고 나오자 소감을 물어서 "작품이 모두 한자로 쓰여 있으며 수준급 명필이 많은 데 한자를 못 읽는 관람자는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 읽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도 못 읽는 것이 많아 한자 문맹인이 부끄러웠습니다."라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세종대왕의 한글창제 덕택으로 문맹자가 극히 적은 선진국이 되었다. 한글전용으로 한자를 학생들이 간접

경험으로라도 접할 기회가 없어 우리나라 초등학교는 대부분 학생이 한자 문맹이다. 우리 사회에서 쓰는 문자는 한자로 마자 한글로 되었으며 한글과 로마자는 관심을 두고 지도하지만 기억력이 가장 좋은 시기인 초등학교에서 한자교육을 외면하고 있어 갈수록 우리 문화에서 한자 문맹 시대로 접어들게 되었다. 그런데도 한글 전용만을 고집하는 사람들은 초등학교에서 2009년부터 창의 학습 과정에 한자 교육을 선택하게 되어 있는데 상부 관서의 미온적인 태도와 학교장의 선택권이 위축된 상태에 한자교육 없는 초등학교 문자 교육으로 이어왔다. 교육부에서는 2015년도부터 한자의 간접경험을 하게 하려고 ()안에 한자를 병기하는 안을 내놓고 교과서에 반영하려 하는 데 일부 한글 학자들은 이를 반대 하고 있다. 그러면 우리말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자는 언제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 우리 문화의 뿌리인 한자는 몰라도 되는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 나와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한자문화권인 동남아와 교역을 하고 우리의 고전을 알게 하려면 한자 문맹이어서는 안 된다. 한글만의 전용으로 우리의 뿌리가 되는 고전기록과 지금도 쓰고 있는 죽보와 한자로 된

비문을 문맹자인 후손은 검은 것은 글씨고 흰 것은 종이라고 읽을 것인가? 한자는 우리 조상이 써오고 지금도 쓰고 있는 문자다. 이러한 문자를 배우고 익힐 기회와 여건 조성을 교육의 기초기관인 초등학교에서부터 해야 하며 이를 외면한 교육자는 훗날 제자들에게 한자 문맹을 만들었다는 원성을 들어 마땅하다. 한자는 특별히 학교에서 가르치지 않아도 요즘 출판된 초등학교 한자 교본은 혼자서도 할 수 있게 편집되어 있다. 그러므로 학교장은 한자 교재를 학생들에게 지급하고 각자 목표를 두고 혼자 독습으로 한자 공부를 하게 하고 학교에서는 한자공부를 하도록 자극만 주어도 한자교육은 간접으로 이루어져 목적달성을 할 수 있을 것이다. 광주시에서는 봉선초등학교와 장산초등학교에서 전교생이 한자교재로 한자공부를 하고 있어 학생이 한자 문맹에서 벗어나게 하고 있다. 학습방법은 한자교재에서 자기목표의 학습할 한자 읽기, 교재에 필순에 따라 쓰기, 한자공책에 익혀 쓰기, 모는 판을 신문지에 올려놓고 붓 펜으로 잘 쓰기의 과정을 통해 학습하는 방법으로 개별학습하며 교사는 개별학습검사를 통해 확인지도하고 있다. 한글에 한자 병기를 반대하는 한글 전용

론자들은 병기 하는 것마저 읽는 속도가 늦어진다고 반대하고 있다. 속도지도는 글자를 읽는 것이 아니라 낱말이나 문장을 한눈에 보도록 지도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자를 병기하면 속독과 독해력을 돕는다고 봐야 한다.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교사들은 한글 전용시대 교육을 이수했기 때문에 한자 지도에 어려움이 있으나, 학교장은 한자를 모르는 교사가 한자 지도를 하는 어려움과 부담감을 생각해서 한자교육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교사의 부담 없이 학생이 한자 학습을 독습하고 있는 선진학교의 지도 방법을 홍보하고 받아들여야 한다. 올미년 새해 되어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초등학교 교육현장에서는 한자 문맹을 만들지 않는 대책을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지혜를 짜내 세우고 실천해야 할 것이다. 새 학년에는 초등학교생들이 한자를 간접경험을 통해 읽을 수 있게 하고 필순에 따라 쓰고 한자의 뜻을 알아 한자에 뿌리를 둔 우리말을 쉽게 터득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교육부에서는 한자어로 된 우리말은 학년 수준에 따라 () 안에 한자를 병기해서 글을 읽는 동안 간접경험으로 한자를 알게 해야 하며 먼 훗날 우리 문화에서 한자가 사라진 한자 문맹 시대가 되지 않게 해야 한다.

無等鼓

누리꾼들은 드라마 영화에서 곧잘 사소한 흠을 잡아내곤 한다. '옥에 티' 찾기 놀이다. 예를 들면 과거 '대장금'에서 수라간에 가스버너가 비친 장면, '별멸의 이순신'에서 '각티슈'가 화면에 잡힌 모습 등이다. 직장인들의 현실을 완벽에 가까운 정도로 묘사한 드라마 '미생'도 옥에 티를 피해 갈 수 없었다. 늘씬한 '기러기'에 아찔한 '불륨감'을 자랑하는 배우 강소라의 '비현실적인 몸매'. 그것은 현실의 직장에선 좀처럼 찾아보기 힘든 '캐릭터'에 '미생'의 유일한 '옥에 티'로 회자(膾炙)되기도 했다.

그러서 찾아왔다. 월남전 참전 용사인 그 선배의 말대로 우리 전투부대가 베트남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은 1973년이었다. 다만 영화 자막에 나오는 대로 월남전의 공식적인 종전은 사이공이 함락된 1975년이니 둘 다 아주 틀린 것은 아니었다.

‘옥에 티’ 찾기

요즘 영화 '국제시장' 열기가 뜨겁다. 영화를 본 사람들마다 얘기한다. 많이 웃었다고. 울기만 했을까. 울다 웃다, 웃다 울다를 반복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감동은 그야말로 관객들을 '들었다 놔다' 했다. 옛그제 만난 언론계 한 선배도 영화를 봤던 모양이다. "어이, 그 영화에도 옥에 티가 있네." "뭔데요?" "월남전이 끝나 우리가 귀국한 것은 73년인데 영화에는 75년에 전쟁이 끝난 것으로 나오더라고요."

옥에 티라 말할 순 없지만 사실과 다른 장면이 몇 군데 있긴 했다. 가령 가수 남진이 영화 속 주인공을 만나는 것은 1975년쯤으로 돼 있다. 하지만 75년이 라면 남진이 제대한다. (1969년에 해방대에 자원 입대해 연애병사로 복무한 남진은 1971년에 이미 전역했다.) 남진이 '님과 함께'를 전쟁터에서 흥얼거리는 장면도 재미를 더하기 위한 영화 속의 허구다. 한국인이 작곡한 그 노래를 남진이 처음 접한 것은 베트남에서 돌아온 이후의 일이라고 한다. 오랜만에 '천만 관객' 영화가 탄생할 것 같다. 하지만 영화를 놓고 정치적 해석이 난무하고 때아닌 이번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은 또 어떻게 봐야 하나. 험난한 시절을 건너 온 아버지 세대에 대한 헌사(獻辭)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데, 한심한 것들! /이홍재 논설교

독자투고·기고

환영합니다

독자투고·기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불편 사항 등을 보내주세요. 채택된 원고는 고료를 지급합니다. 원고를 보내실 때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를 함께 적어 주십시오. 501-710 광주시 동구 금남로 238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 전화 062-2200-696 /팩스 062-222-4918 /e메일 opinion@kwangju.co.kr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申港樂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우편번호 501-710)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경 제 부 2200-632 <F A X 222-8005> <F A X 222-0195>
편 집 부 2200-649 문화생활부 2200-661 광고마케팅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정 치 부 2200-642 여론매체부 2200-696 <F A X 227-9500>
광고 FAX 222-4918) 체 육 부 2200-697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사 회 부 2200-663 사 진 부 2200-693 프 로젝 트 팀 2200-555 <F A X 02-773-9335>
(대표 FAX 222-4267) 조 사 부 2200-571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